

- 회장의 환영인사
- 코윈 디씨 챗터 주요뉴스
 - 2010 부산 코윈 연례미팅
 - 여성가족부 차세대여성보조금 프로젝트 선발
- 9월 코윈 디씨챗터 정기회의
- 회원 동정

환영 인사



친애하는 워싱턴 디씨 코윈 회원님들께,

먼저 우리 코윈 디씨 챗터의 첫 뉴스레터 발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원님들께서 즐겁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디씨 챗터의 활동에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김광자 전 회장님이 지난 2년 간 디씨 지부의 회장직을 수행하신 이래 우리 챗터에 큰 성과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약 50 여명의 회원님들의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09년 인천에서 개최된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연례회의에 활발히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챗터는 자연재해에 고통받은 아이티 국가의 아이들과 한국 정신대 대책위원회 여성들을 위한 기부활동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챗터의 정기적인 회의 뿐 아니라 미국 동부지역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미나도 빼놓을 수 없는 큰 성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활동을 주관하시고 헌신적으로 기여하신 김광자 전 회장님께 큰 찬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김광자 전 회장님의 뒤를 이어 코윈 디씨 챗터의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은 큰 영광입니다. 이를 본받아 코윈 디씨 지부의 지속적인 성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뿌리인 한국의 변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여성가족부에서 채택된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디씨 지역의 한국계 미국인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느 성공적인 조직과 마찬가지로 코윈은 우리의 차세대 친구이자 동료, 동생, 그리고 딸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지도자로 성장하며 사회에 기여하도록 준비시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코윈 디씨 챗터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들의 조언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 남명호 올림

주요 뉴스

2010년 한국 부산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 연례미팅 참가



2010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이하 코윈) 연례미팅이 8월 29일부터 9월 1일, 한국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코윈 설립 10년이 된 해로 이제껏 코윈 회의를 참석했던 참가자들의 참석을 독려하여 지난 10년을 평가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돋보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코윈에 참석한 참여자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및 정보공유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코위너(KOWINNER)가 설립되어 향후 활동에 대한 활발히 논의가 있었다.

디씨 챗터는 남명호 회장과 김광자 전 회장을 포함하여 총 8명의 회원이 참가하였고, 우리 디씨 챗터에서 추천, 후원한 차세대 여성지도자 최서은씨도 함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 지역 회원님들의 활발한 활약과 성과가 돋보였다. 우리 챗터 회원인 신수경 (국제통화기금(IMF), 의전관 및 선임위원)씨는 ‘여성과 국제경제’라는 주제에서 발표자로 선발되어 남성과 여성모두에게 일과 삶을 균형되게 맞추는 직업의 기회를, 아울러 여성지도자의 국제적 매너를 강조하였다.

차세대 여성리더로 선발된 최서은씨는 ‘차세대 리더가 말한다’라는 주제에서 서울, 차세대여성경제인 세미나에서 거둔 성과 및 의의를 발표하였다.

코윈 디씨챗터, 여성가족부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선발

여성가족부가 후원하는 차세대여성보조금에 우리 디씨 챗터가 제출한 프로젝트가 선발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따라 11월 21일에 코윈 디씨챗터 주최로 열릴 차세대리더양성 세미나 및 멘토링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 챗터는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의 중심부인 미국 수도권 디씨의 특수성을 기반으로 높은 교육수준 및

최고의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한인계여성들을 창조적이고 경쟁력있는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난 여름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여성들에게 현직에 있는 여성리더들과 만남을 주선하고 선배들의 노하우와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의 기회 주선함으로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 회원님들의 활발한 참여와 의견을 받으며 준비중이다.

9월 정기회의 소식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이하 코윈) 디씨 챗터 회의가 9월 28일 우레옥에서 진행되었다. 노명화 총무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총 21명의 회원들의 활발한 참여로 진행되었다.



주요 안건으로는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1일, 한국 부산에서 진행된 2010년 코윈 연례미팅 참석자 보고 및 여성가족부,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지원 보조금 결과보고였다. 우리 챗터는 지난 7월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프로젝트가 선발되어 향후 관련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김광자 전 디씨 챗터 회장의 헌신과 노고를 감사하는 감사패가 수여되어 훈훈함을 더했다.

남명호 신임회장은 향후 진행될 디씨 챗터의 분기별 뉴스레터 및 웹사이트 제작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요청했다. 또한 차세대 여성리더 양성지원에 따른 세미나 및 멘토링 프로그램에 활발한 참여를 기대했다. 아울러 '코윈의 친구(Friends of KOWIN)' 발족을 제안하며 한국계 여성들 뿐 아니라 직장 동료, 친구들에게 코윈의 뜻을 함께할 것을 격려했다.

지난 6월 정기회의를 통해 새로 추대된 남명호 박사는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워싱턴 병원 등에서 근무한 후 현재 이노바 페어팩스 병원 임상병리과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워싱턴 병리학회 회장을 역임한 바 있다.

회원동정

○ 코윈 디씨 챗터의 이정희 부회장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몰 '바이오 코리아 (BIO KOREA)' 전시회에 참가였다. 남명호 부회장과 함은선 서기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 김홍자 교수 (Montgomery College)의 주얼리 작품 단독 전시회 개막식이 9월 17일 버지니아 맥클린에 위치한 MK Gallery 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작품전시회에서는 김홍자교수님의 4점의 Wall Relief, 1점의 Wall Mirror Relief 을 포함하여 30여점의 예술 보석품이 전시되었다.

○ 코윈 미국지역 대표들은 9월 2일 한국 여성가족부의 면담을 통해 코윈과 코위너에 대한 역할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 디씨 지역에서는 신임회장인 남명호 박사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 남명호 회장과 함은선서기, 김광자 전 회장이 한국 정신대대책협회에 방문하여 성금을 기부하였다. 김광자 전 디씨 챗터 회장이 현재 워싱턴 회장으로 역임하고 있으며, 이번 성금은 서대문 여성과 전쟁, 인권박물관 설립에 기여될 것이다.

○ 김영기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월 7일 한국문화원주체로 열린 한글기념행사에 참여해 '한글의 기원과 디자인'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첨부 1: 신수경 발표요약문]

여성과 국제경제

본 발표요약문은 8월 29일에서 9월 1일, 한국 부산에서 진행된 2010년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연례회의 가운데 “여성과 국제경제” 포럼의 주제발표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8월 30일에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까지 여성들은 거주국에 관계없이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남성들과 비교하여 적은 보수를 받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여성들은 유사 직종에서 일하는 남성 월급에 약 80%를 받고 있는데 이는 남성 월급의 60%에 머물렀던 50년 전에 비하면 수십년 이룬 발전이라 할 수 있다. 경제규모면에서 1위를 차지하는 미국은 성별간 임금격차에서는 세계 1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경제규모 15위에 랭크되어 있으나 성별간 임금격차에서는 38위에 머물고 있다. 반면 여성이 남성 임금의 91%를 차지하는 벨기에의 경우 경제규모는 20위이나 성별간 제일 적은 임금격차를 보이며 1위에 올랐다.

고용주가 여성에게 적게 투자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여성이 출산 및 양육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두어 남성에게 비해 일에 덜 헌신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관념을 없애기 위해 고용주들은 먼저 남성과 여성 모두가 일과 삶을 균형되게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성별간 임금격차가 거의 존재하지 않은 기관이다. 물론 기금이 하나의 국가조직은 아니지만 각 국가의 고용주들은 국제통화기금의 가이드라인인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제통화협력을 위한 세계중앙기구로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인 187개국이 협모아 공익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금의 최우선 목적은 국제통화체제(국가 및 각 국민이 상품과 서비스 매매를 위한 환율과 국제지급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삶의 기준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수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44년 7월, 45개국의 정부대표단이 1930년대 대공황을 야기한 그릇된 경제정책의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 고안된 ‘부분적 경제협력 체계’에 동의하여 설립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업무에는 재정위기에 처한 회원국들에게 기금을 융자하는 일도 포함된다. 1997-98년 아시아 재정위기때 한국의 경제회복 및 재정과 기업분야의 구조개선, 그리고 경제회복을 위해 기금은 한국정부에 약 210억 달러를 차용해주었고, 한국은 이를 4년 만에 모두 상환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의사결정권은 회원국 대표단으로 구성된 이사회에 있으며 주로 각 회원국의 재정부장관이나 중앙은행총재들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대부분은 남자로 이루어져있는데 더 많은 여성들이 각 국가대표로서 중요한 국제재정관련 결정에 참여됨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여성 지도자들은 즉각적인 토론과 대화를 위해 주요 이슈에 대한 포괄적인 지식을 지녀야 한다. 또한 드레스 코드, 리셉션 및 저녁식사 에티켓,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적절한 응대 법과 관련한 소프트 스킬을 완벽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미국식 혹은 유럽식의 식사 시 서비스 코드에 대한 지식은 필수적이다. (관련 소프트 스킬은 프리젠테이션에서 자세히 논의되었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콘돌리자 라이스가 2005년 2월 독일 바이른마덴 공군기지 방문시 검은 하이힐 부츠를 신었던 일이 신문의 주요면을 장식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여성 지도자들은 남성 지도자들보다 더 세심히 살피지고 관찰당한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에서 사회적/프로토콜 관리자로서 20년간 근무해 온 내 경험에 비추어볼 때 소프트 스킬 부족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과 VIP 회기동안 중요업무수행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여성 지도자들은 국제적 영역에서 격식에 맞는 업무수행을 위해 국제적 프로토콜을 인식해야 한다. 해박한 전문지식 외에도 국제적인 예의를 함께 겸비했을 때 비로서 국제적 여성지도자로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첨부 2: 최서은 발표 요약문]

미래, 차세대 여성리더가 답한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최서은입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와 함께 이번 부산 코윈 연례미팅에 앞서 일주일간 서울에서 진행된 “차세대 여성경제인 워크숍” 성과 및 의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Johns Hopkins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에서 국제경제와 개발학 석사를 수학한 후 월드뱅크 개발경제연구소(Development Economics Research Group)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거시경제 및 경제성장, 금융 및 기업부문 개발, 국제무역 등 월드뱅크의 주요 정책 및 관련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곳으로 뱅크 내 썬크탱크라 할 수 있습니다. 저의 주요 업무는 국제무역부문에서 각 국가의 서비스분야의 무역정책을 조사하고 국제경제통합에 실질적으로 장벽이 되는 요소를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차세대 여성경제인 워크숍에 대해 간단한 브리핑 및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여성경제인 워크숍”은 여성가족부와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INNER)에서

공동주최한 제 1회 차세대 양성 프로그램으로 4박 5일의 일정으로 진행되어 미국, 브라질, 중국 등 총 13개국에 40세 이하의 총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통해 직접적인 회사운영 및 노하우를, 경제학 및 산업공학과 교수를 통해 세계경제 및 국제경제동향을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세차레의 현장학습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한성식품, 청년 벤처사업에서 시작하여 현재 코스닥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제닉스 화장품회사, 그리고 참존 화장품의 창업주를 만나 그분들의 비즈니스 철학 뿐 아니라 삶과 성공에 대한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큰 카테고리도 리더쉽 훈련 및 인간관계에 대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여성리더로서 필요한 덕목 및 리더쉽 뿐 아니라 육아와 일 사이에서 균형적인 삶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또한 팀 프로젝트로 마케팅전략에 관한 팀별 경쟁 및 세계 각 지역 담당관님들이 참여한 멘토링 및 네트워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여성으로 겪고 있는 고민과 이슈들을 이미 극복하신 선배님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분들의 열정과 후배에 대한 책임성을 배웠습니다.

다음은 제가 차세대여성경제인 워크샵을 통해 새롭게 배운 점입니다. 첫째, 성공의 공통적 덕목인 성실, 긍정적인 사고, 정직의 중요성을 새로이 기억하였습니다. 특히 4박 5일간 많은 강연자 및 선배님들이 보여주신 열정은 잊을수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느껴지는 지나온 발걸음에 대한 자부심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이를 후배들에게 나누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둘째, 한국의 차세대 여성정책리더로서 리더십과 사명감을 새롭게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자칫 현장에 있다보면 개인의 성공과 경력관리에 치중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이런 세미나 기회를 통해, 국가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일, 사회에 환원해야하는 부분, 그리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다시한번 마음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감있는 사회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과 시각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사회는 학계, 정계, 재계가 유기적인 관계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의 주요 주체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제 역할을 제대로 담당할 때 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사회적 사건을 바라보는 제 시각이 이번 워크샵을 통해 학문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마인드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비즈니스적인 사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기적인 사회 속에 긴밀한 협조를 필요로 한 각각의 사회 주체들 (즉 정계, 학계, 재계)의 존재를 책이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만남으로써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을 책임져야 할 리더가 편협하고 균형되지 않은 시각을 가진다면 그에 뒤따른 여러 폐해가 클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배움을 통하여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따듯하고 열정적인 마음과 자세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구제를 꿈꾸는 국제 여성 경제정책가가 될 것입니다. 이번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경제정책을 통한 국제협력분야에 대한 제 신념이 더욱 튼튼히 다듬어져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 리더십을 기르는 소중한 발판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디씨 챗터
 President, 남명호 박사 (Lucy.Nam@inova.org)
 Editor, 최서은 (Thelma.Choi@gmail.com)